

#### 4. 호주 기관투자자, 주주관여를 권고하는 가이드라인 지지 (2014.2)

- 지난 2월 26일, 호주의 지배구조 전문가 양성기관인 Governance Institute of Australia(이하 GIA)는 지배구조 전문가 Sandy Easterbrook과 함께 주주의 효율적인 관여(engagement)를 권고하는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함
  - 이 초안은 호주증권거래소(ASX)에 상장된 기업과 기관투자자들이 협력하여 기업가치와 기업의 장기적인 성과를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음
    - 일각에서는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며,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형성은 물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한 전략,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
- 가이드라인은 기업과 기관투자자의 올바른 주주관여 방법에 대해 권고함
  - 우선,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 시 의사결정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함
  - 기업은 의결권 행사 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관투자자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의결권 자문기관을 비롯하여 이들이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함
  - 기업은 정기주주총회 이외에 포럼 또는 회의를 개최하여 회사의 중대 사안을 주주와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건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함
- 이 가이드라인 초안은 호주의 대형 기관투자자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으며,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2월 미국에서 출범한 주주-이사거래소(Shareholder-Director Exchange, 이하 SDX)의 출범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음
  - 미국의 SDX는 주주관여를 활성화시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지배구조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함
    - 즉, 기업과 주주간의 의사소통 부재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업이 직면한 ESG이슈에 대해 주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임
- GIA는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4월 24일까지 받을 예정임